

## 리 산 목

《ㄱ》 부얼간[부억깐], 부얼비[부억뻬], 부얼세간[부억쎌간], 부얼지계문[부억찌계문]

— [ㄷ]발음뒤에서 순한소리의 된소리되기

《ㄷ》 단긴옷[단끼논], 굳다[굳따], 곧바로[곧빠로], 굳세다[굳세다], 굳잠[굳짬]  
 《ㅅ》 옷깃[온깃], 깃들다[깃들다], 헛보리[헛쁘리], 낫수저[논쭈저], 돛자리[돛짜리]  
 《ㅈ》 갓가지[갓까지], 낫도적[낫또적], 맞불질[맞뽇질], 맞선[맞썸], 맞장구[맞짱구]  
 《ㅊ》 빗갈[빔갈], 돛대[돛때], 숯불[숯뽇], 꽃수레[꼇수레], 낫줄[단쥬]  
 《ㄷ》 발갈이[발까리], 밀둥[밋뚱], 밀반찬[밋뽤찬], 팔소[판쏘], 물집승[물썸승]  
 《ㅈ》 갓고[갓꼬], 갓다[갓따], 갓소[갓쏘], 갓지[갓찌]

— [ㅂ]발음뒤에서 순한소리의 된소리되기

《ㅂ》 밥팍[밥팍], 합동[합뚱], 톱밥[툽뽵], 급수[급쭈], 삽질[삽짚]  
 《ㄱ》 덮개[덥개], 깊다[깃따], 늪새바람[늪썸바람], 늪직이[늪찌기]  
 《ㅅ》 밭다[밥따], 넘적글자[넙쩍글짜]  
 《ㅊ》 시웁기[시읍끼], 읊다[읍따], 읊소[읍쏘], 읊조리다[읍쪼리다]  
 《ㅈ》 값과[갑까], 값도[갑또], 엇습니다[업썸니다], 값지다[갑찌다]

- ② 말줄기끝에 있는 받침 《ㅎ, ㄴ, ㄹ》뒤에 오는 《ㅅ》으로 시작되는 토의 된소리되기  
 《ㅎ》 종소[조쏘], 종습니다[조썸니다]  
 《ㄴ》 많소[만쏘], 많지 않습니다[만치 안썸니다]  
 《ㄹ》 웁소[울쏘], 잃습니다[일썸니다]

③ 동사나 형용사의 말줄기끝에 있는 받침 《ㄴ, ㅁ, ㅂ, ㅅ》뒤에 오는 토나 뒤불이의 된소리되기

《ㄴ》 (아기름) 안다[안따], 안고[안꼬], 안기[안끼]  
 《ㅁ》 품다[품따], 담고[담꼬], 넘기[넙끼], 감습니다[감썸니다]  
 《ㅂ》 었다[언따], 었게[언께], 앓소[안쏘], 앓자[안짜]  
 《ㅅ》 젊다[점따], 닳기[담끼], 젊지 않다[점찌 안타], 읊습니다[옴썸니다]

④ 동사나 형용사의 말줄기끝에서 [ㄹ]로 발음되는 받침 《ㄹ, ㅅ, ㅈ》뒤에 오는 토나 뒤불이의 된소리되기

《ㄹ》 밝고[발꼬], 맑구나[말꾸나], 맑게[말께], 굵기[굴끼]

\* 《ㄹ》은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불이가 올 때 [ㄹ]로 발음되며 그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ㅅ》 넓고[넙꼬], 넓구나[넙꾸나], 짹게[짹께], 밟기[발끼]

\* 《ㅅ》은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불이가 올 때 [ㄹ]로 발음되며 그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ㅈ》 할다[할따], 할기[할끼], 훑습니다[홀썸니다], 훑자[홀짜]

⑤ 한자어에서 《ㄹ》받침뒤에 오는 《ㄷ, ㅅ, ㅈ》의 된소리되기

《ㄷ》 발달(發達)[발딸], 절대(絶對)[절때], 갈등(葛藤)[갈뚱]  
 《ㅅ》 결성(結成)[결썸], 결심(決心)[결썸], 불사조(不死鳥)[불싸조]  
 《ㅈ》 결정(決定)[결짚], 돌진(突進)[돌썸], 건설장(建設場)[건설짱]

⑥ 혀열소리 [ㄹ]뒤에 오는 일부 고유어 혹은 고유어화된 한자어로 된 보조적단어의 된소리되기

열그루[열끄루], 여덟가지[여덜가지], 여덟벌[여덜뽵], 열살[열쌀], 열가마니[열까

마니], 여덟개[여덜개], 열동[열똥], 열지함[열찌함]

\* 《문화어발음법》[주체99(2010)년]에는 《일부 고유어로 된 보조적단어》가 《ㄹ》 받침뒤에 오는 경우라고만 지적되어있는데 거기서 레로 제시한 《열개》, 《(집) 열동》의 《개(個)》, 《동(棟)》이나 그리고 우에서 레로 든 《지함(紙函)》 같은것은 원래 한자어이다. 따라서 《고유어 혹은 고유어화된 한자어인 보조적단어》라고 하는것이 보다 정확하다.

⑦ 규정토 《ㄹ》뒤에 오는 순한소리의 된소리되기

《ㄱ》 할것[할꺼], 갈 곳[갈 꼐]

《ㄷ》 갈데[갈떼]

《ㅂ》 가실분[가실뽀], 할바에는[할빠에는]

《ㅅ》 할수 있다[할쑤 일따], 일할 사람[이랄/일할 싸람]

《ㅈ》 설자리[설짜리], 그럴 정도[그렐 쟁도], 할줄 안다[할쑤 란다]

⑧ 토에서 《ㄹ》뒤에 오는 순한소리의 된소리되기

—ㄹ가[—ㄹ까], —ㄹ듯[—ㄹ뜰], —ㄹ수록[—ㄹ쑤록], —ㄹ지[—ㄹ찌], —ㄹ지언정[—ㄹ찌언정]

\* 《문화어발음법》(1988년) 제15항에서는 《일부 단어에서나 고유어의 보조적단어 또는 토에서 <ㄹ>받침뒤에 오는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는것을 국한하여 허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발음규범인 《문화어발음법》[주체99(2010)년] 제14항에서는 이것을 《규정토 <ㄹ>뒤에 오는 경우》의 된소리되기의 레로 제시해놓았다.

규정토는 명사나 불완전명사와 같은 대상적단어앞에서 그 특성을 규정하는 토이다. 그런데 토안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를 규정토 《ㄹ》뒤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선다.

《언어학사전2》(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년)에 따르면 이 《ㄹ》은 력사적으로 없음토(규정토)에서 기원한것으로 볼수 있다.

이처럼 어원을 따지면 규정토 《ㄹ》뒤에서의 된소리되기라고 할수 있어도 현재는 《력사적으로 굳어진 발음》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

2)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① 일부 한자음의 된소리되기

한자음의 된소리되기에에는 무조건적인것과 조건적인것, 규칙성이 약한것이 있다.

—무조건적인것

《가(價)》 대가[대까], 원가[원까], 물가[물까], 영양가[영양까]

《건(件)》 사건[사꺼], 문건[문꺼], 용건[용꺼], 의례건[의례꺼]

《권(券)》 금권[금꺼], 구매권[구매꺼], 상품권[상품꺼]

《권(圈)》 대기권[대기꺼]

《권(權)》 주권[주꺼], 인권[인꺼], 실권[실꺼], 주도권[주도꺼]

—조건적인것(소리마디수나 받침의 유무 또는 의미적조건에 따르는것)

《적(的)》 사적[사꺼], 공적[공꺼], 건설적[건설꺼], 혁명적[혁명꺼]

\* 력사적, 유기적, 결사적, 맹아적 ×

《급(級)》 동급[동꺼], 고위급[고위꺼], 장령급[장녕꺼]

\* 계급, 등급, 초급, 일급 X

《간(間)》 고간[고깐], 마구간[마구깐], 외양간[외양깐]

\* 시간, 공간, 월간, 부부간, 사제간 X

《법(法)》 헌법[헌뻔], 로동법[로동뻔], 교수법[교수뻔]

\* 사법, 방법, 비법 X

《성(性)》 당성[당쎡], 자주성[자주쎡], 협조성[협쑤쎡], 근면성[근면쎡]

\* 개성, 지성, 동성 X

—규칙성이 약한것

《기(氣)》 인기[인끼], 운기[운끼], 건달기[건달끼], 광기[광끼]

\* 노기, 열기, 감기, 향기 X

《격(格)》 주격[주격], 신격[신격], 실격[실격], 엄격[엄격]

\* 가격, 규격, 자격, 체격 X

② 합성어나 파생어에서의 사이소리에 의한 된소리되기

—합성어

앞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

명태국[명태꺅], 고기덩이[고기뎡이], 국수집[국수꺅], 고기점[고기꺅]

앞형태부가 울림소리자음 《ㄴ, ㄷ, ㄹ, ㅁ, ㅇ》으로 끝나는 합성어

손등[손뎡], 가을밤[가을뻔], 고함소리[고함쑤리], 강기슭[강끼쑤]

—파생어

앞불이+말뿌리

상닭[상딱], 중개[중꺅]

말뿌리+뒤불이

시내가[시내까], 구경꾼[구경꾼], 돌덩이[돌뎡이], 글밭[글뻔], 눈짓[눈쑤]

《문화어발음법》[주체99(2010)년]에서는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에 대하여 《사이소리가 순한소리앞에 끼여나는 경우는 그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규정하여놓았다.

문제는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이 사이소리이다.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에서 언급한 ③, ④, ⑤, ⑥, ⑦, ⑧과 같은 《울림소리 뒤에서의 된소리되기》와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역사적으로 굳어진 관습적인 발음현상이다.

표기법의 변화와 함께 현재는 국한적인것으로 인식되어있는 사이소리가 바로 막힘소리가 아닌 울림소리뒤에서도 된소리되기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사이소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를 사이소리현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한정되어있다.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주체96(2007)년]에서는 사이소리에 대하여 《모음이나 〈ㄴ〉, 〈ㄷ〉, 〈ㄹ〉등의 울림소리로 끝난 형태부가 다른 형태부와 이어질 때 두 형태부의 사이에서 뚫나는 목구멍터침소리》라고 풀이하고있다.

그리고 《조선말력사 2》(사회과학원, 1992년)에서는 사이소리현상은 이미 고려시기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15~16세기에 이르러 더욱 활발해졌으며 민족글자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 중엽이후의 출판물에는 그것이 눈에 띄게 표기되어있어 그 본질과 기능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할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조선말력사 2》에 따르면 그 시기의 사이소리는 두 단어나 두 형태부의 합침이나 결합을 문법적으로나 단어조성적으로 그리고 어음론적으로 긴밀히 해주는 목구멍터침소리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 기능은 첫째로, 문법적으로는 그것이 옷단위와 아래단위와의 사이에 끼여서 규정적기능 곧 옷단위가 규정을 하고 아래단위가 그 규정을 받는 관계를 나타내고 둘째로, 단어조성적으로는 두 단위가 어울려서 하나의 합성어나 단어결합으로 되는 관계를 나타내며 셋째로, 어음론적으로는 아래위의 두 말소리단위를 하나의 큰 말소리단위로 이어준다는것이다.

사이소리의 기능과 관련하여 그것이 형태부들의 경계를 드러내어 뜻을 명백하게 하는 기능을 더 보충할수 있다.

레컨대 《당적》을 [당적]이라고 그대로 발음하면 《당의 일정한 조직에 소속되어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등록하여놓은 기록 또는 그 등록된 소속관계》라는 뜻이 나타나며 이것을 [당적]이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면 《당의 원칙에 따르거나 또는 당의 사업에 속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것)》이라는 뜻이 되어 그 의미가 명백하게 갈라진다.

《비바람》도 [비바람]으로 발음하면 《비와 바람》이라는 뜻이 되고 [비빠람]으로 발음하면 《① 비를 몰아오면서 부는 바람 ② 우여곡절이나 모진 시련》이라는 뜻으로 명백해진다. 물론 현재는 맞춤법에 따라 표기는 《비바람》과 《빗바람》으로 구별하여 쓰게 되어있다.

사이소리가 두 형태부사이에 덧나는 목구멍터침소리(혹은 울대터침소리) 바꾸어말하여 뒤에 오는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수 있는 막힘소리라는 견해는 《언어학사전 2》(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년)나 《조선어발음편람》[사회과학원출판사, 주체90(2001)년] 등 다른 자료들에서도 확인할수 있다.

사이소리로서의 막힘소리를 현재는 편의상 [ㄷ]으로 말하거나 표기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단어안에서 사이소리가 나게 되면 말소리들의 결합조건에 따라 발음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아니라 《ㄴ, ㅁ》이 올 때 앞에 있는 막힘소리 [ㄷ]은 소리났기현상을 일으켜 울림소리 [ㄴ]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이 [ㄴ]도 사이소리에 포함시켜 말하기도 한다.

어제날[어제 ㄷ날→어젠날], 배놀이[배 ㄷ놀이→벤노리]

시내물[시내 ㄷ물→시낸물], 뒤마당[뒤 ㄷ마당→뉘마당]

《문화어발음상식》[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4(2015)년]에서는 사이소리현상에 대하여 《모음이나 울림소리로 끝나는 형태부가 뒤에 오는 형태부에 규정적관계로 어울릴 때 두 형태부사이에 막힘소리 [ㄷ]이나 울림소리 [ㄴ]을 덧내어 발음하는 현상》, 《두개의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 뒤요소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나거나 사이에 받침소리 [ㄴ]이 덧끼워나는 발음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발음결과에 관계없이 사이소리자체는 합성어를 이룬 형태부의 경계와 뜻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단 말소리흐름을 막음으로써 뒤에 오는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만드는 막힘소리로 보아야 한다.

사이소리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사이소리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사이소리현상은 역사적관습에 의한 우리 말의 독특한 발음현상으로서 현재 우리 말에서 그것을 완전히 규칙화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맞춤법의 변화와 더불어 표기대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아지고있는 오늘 사이소리발음은 조금씩 소극화되고있는 반면에 오랜 관습에 의한것이므로 사람들의 나이와 사는 곳 그리고 감각에 따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사이소리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조선어문》 주체98(2009)년 1호]에서는 형태부들의 결합정도가 강할수록 또한 결합의 성격이 병렬적인 관계가 아니라 규정관계나 속성관계일 때에 사이소리가 나는 룰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어발음상식》[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4(2015)년]에서는 사이소리가 명사적형태부들사이에서 주로 끼워난다고 밝혔으며 사이소리가 앞에 나는 형태부와 뒤에 나는 형태부 그리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한자음을 자료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사이소리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을 다 밝혔다고는 말할수 없다.

평양문화어에 나타나는 사이소리현상을 규범화하려면 이미 밝혀진 어음론적조건뿐아니라 형태론적결합조건과 의미론적결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언어생활의 통일성과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필요할뿐아니라 평양문화어발음을 정확히 보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발음에서 된소리되기와 사이소리현상이 일어나는 조건과 원인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아름답고 고상한 평양문화어발음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조선말발음, 된소리, 사이소리되기